

한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인정 받았다

美 커뮤니케이션 연맹 비전 어워드 수상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등급 획득
전 세계 1천여개 기업 중 Top 12 기록

한국전력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ESG 경영 성과와 정보 공개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했다.

한국전력(한전)은 11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LACP)가 주최하는 '2024/25 비전어워드(Vision Awards)' 유틸리티 분야에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등급인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비전어워드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LACP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어워드, 매년 포춘 500대 기업을 비롯해 세계 유

수 기업 및 정부 기관,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연차보고서 등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을 평가한다.

2024/25 비전어워드는 1천여 개의 기업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으며 한전은 총 8개 평가 항목 중 첫인상, 메시지 명확성, 독창성, 서술방식 등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100점 만점에 총 99점으로 전체 참가 기업 중 Top 12위에 선정됐다.

한전은 2005년 공공기관 중 최초로 UNGC(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이래,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성과와 추진 방향을 투명하고 충실하게 전달하는 등 고객과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25 한전 및 전력그룹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한전의 새로운 비전인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의 재수립 배경, 의미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

장하기 위한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ESG 경영의 우수성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력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ESG 공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6개 발전사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4개 자회사를 추가했으며 복잡한 에너지 정책과 전문적인 데이터를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와 사례를 활용해 직관적으로 제시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S&P 글로벌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 선정에 이은 LACP 비전어워드 대상 수상을 통해 한전의 높은 ESG 경영 수준과 정보공개 투명성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국내 에너지 대표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구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채만 기자



갤럭시 S26 시리즈 공식 출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가 공식 출시된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강남매장에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다산배아채 김유림 총괄사장 모범납세자상 수상

투명 경영·성실 납세 실천

지역 상생과 골프 인재 육성 앞장

강진의 대표 관광 휴양지인 다산배아채 골프앤리조트의 김유림 총괄사장이 최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수상은 투명한 회계 관리와 성실한 납세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모범납세자상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와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유림 총괄사장은 취임 이후 "정직한 기업만이 지속 가능하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매출 관리부터 세금 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 지표를 투명하게 관리해 왔다.

이러한 경영 원칙은 다산배아채 골프앤리조



트가 지역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산배아채 골프앤리조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9년부터 매년 강진군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성탄절 '사랑의 군고구마' 판매 행사를 통해 고객과 임직원들이 함께 모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설립자인 김호남 회장의 '정도(正道) 경영' 정신을 이어받아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경영 철학을 실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산배아채 골프앤리조트는 다산·배아채·장보고 코스 등 총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만을 조망할 수 있는 씨사이드 코스를 갖춘 남도 대표 골프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리조트와 골프장을 찾는 관광객과 골퍼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해 KLPGA 점프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골프 유망주 육성과 국내 골프 산업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김유림 총괄사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성실 납세와 투명 경영은 기업이 사회와 지역에 대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정직한 경영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aT, 이달 말까지 식품외식·푸드테크 청년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일 "식품외식·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식품·외식 산업 현장에서의 실무경험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인턴 채용 이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관련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청년인턴을 1개월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식품외식기업과 푸드테크기업 중 해당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기업이다.

청년인턴은 채용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과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고 4대 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이다.

선정된 식품외식기업은 인턴 한 명당 월 100만원(3개월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푸드테크 기업은 한 명당 월 150만원(4개월 한도, 기업당 최대 6명)의 연수비를 지원한다. /인태호 기자

농어촌공, 재해 없는 사업장 조성 국제 기준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ISO 45001' 인증 취득

한국농어촌공사가 '재해 없는 안전 사업장'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체계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공사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전국 각지에 분포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KRC-EVERY 안심일터' 전략을 수립·실행했다.

인공지능 시시티브이(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했으며, 소규모 현장과 취약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안전 조치도 함께 추진했다.

시장 중심의 확고한 안전경영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중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사람 중심의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안전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발족과 더불어 전국 부서장 토론회에서 '안전 레드라인'을 선언하는 등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으로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고흥군** Goheung-gun 광고문의 : 062)650-2099